

교육ODA 발전방안 유형 분석 연구: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김선정** · 전해은***

요약

본 연구의 설계는 교육ODA가 특정 이론에 근거한 기초 학문이 아닌 실천적·실증적·사회정책적 성격을 갖는 수행 활동임에 주목하여 학술연구자의 논의가 일련의 정책으로 환류될 필요성이 있음에 근거하였다. 따라서 연구 목적은 학술 연구 기초 동향 분석과 연구적 시사점 및 제언 내용을 유형화하여 교육ODA의 발전방안으로 제시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국내 교육ODA 연구자들의 고찰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고, 향후 실증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동향 분석 결과, 국내 학계의 교육ODA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가 80%를 차지하고, 연구분야는 사회정책 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대상은 자기분석(한국사례)한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둘째, 연구 제언 분석 결과, 교육ODA 발전방안 유형은 ① 기구 및 제도 설치, ② 사업 내용 방향 전환, ③사업 수행 방법의 다변화, ④연구 개발 확대, ⑤ 협력 관계 강화까지 다섯 가지 대범주로 분류되었고, 그 안에서도 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91517).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제1저자, minjin652@naver.com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교신저자, jhaeeun@kmi.re.kr

양한 세부 발전방안이 제시되고 있었다. 다만, 발전방안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적 접근과 전문가들의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학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교육ODA, 교육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발전방안, 제언분석

I. 서 론

국제사회는 전 세계 번영과 평화를 위해 반세기 넘게 개발협력을 수행해 왔다. 2000년에는 UN 주도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를 설정하여 전략적인 발전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으며, MDGs 종료 후에는 후속 의제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를 채택하여 사회적 포용, 경제 성장, 지속가능환경 등 3대 분야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을 2030년까지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15a).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구 중 9.3%는 여전히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으며(The World Bank, 2022),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신종 바이러스성 질병, 테러 증가, 기후변화 및 환경 악화 등의 예상하지 못했던 글로벌 문제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심화시켜 개발협력에 대한 회의감을 확대해 가고 있다. 더욱이,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에 제공했던 지난날의 원조들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현행 개발협력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계속 증가하고(권혁주 외, 2020), 글로벌 경기 침체와 COVID-19로 인한 위

기는 개발협력 주요 재원인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축소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끼쳤다(Ahmad et al., 2020).

그런데 국제적 동향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정부는 2010년부터 개발 재원을 크게 증액시켜 왔다¹⁾. 구체적으로, 2020년 ODA는 COVID-19 영향으로 작년 대비 2.1억 달러 감소한 22.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²⁾ 최근 10년(2010~2019년)을 기준으로 OECD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양적 증가율을 보였고, 이러한 ODA 확대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1). 이는 국제적으로 원조피로도(aid-fatigue)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공여국의 역할을 확대 수행하려는 기조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공여국에 비해 공여 경험이 부족한 국내 실정에서 한국형 개발협력의 질 문제 및 성과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학계에서는 현행 개발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은 1990년대부터 추진되었지만, 국내 학계에서 개발협력을 논의하고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한 해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보고 있다(한재광, 2021). 그 이유는 2000년대 중반 시점부터 개발협력 관련 선행연구의 수 및 연구주제의 범위와 영역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분야 ODA에 관한 학술연구 및 실제 수행 사례가 다른 분야에 비해 다양한 편이다. 교육분야는 한국 ODA의 핵심 분야로, 양자간 ODA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ODA의 약 15% 수준이며(안

1) OECD DAC(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된 시기를 기점으로 함.

2) 외교부 보도자료 ‘20년 우리나라 ODA는 22.5억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국가 중 16위.

해정 외, 2016), 24개의 중점협력국 중 16개국의 중점협력 분야에 교육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1). 한국은 효과성 제고를 위해 양자원조의 70%를 중점협력국에 지원하고, 중점협력국 예산의 70%를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다고 판단한 중점협력 분야에 투입하는데, 교육분야를 포함한 국가가 많다는 것은 한국의 양자 ODA에서 교육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교육ODA에 주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교육ODA의 발전을 위하여 학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육 ODA 발전방안들을 유형화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적 접근은 단일의 명확한 발전안을 제시하는 실증연구 이전에, 학자들이 개별 연구를 통해 제시한 다양한 연구적 제언들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검토한 후, 유사한 내용(발전방안)을 군집하여 나열해 보는 기초연구로 설계하였다. 한국은 범정부 차원의 개발협력 법률 제정을 이루었으나 영역별(교육, 보건 등) 정책 및 발전방안을 공표한 바가 없고, 다만 학계의 세부 전공에서 영역별 ODA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연구 방법은 학술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양적 동향 분석과 연구자들이 제시한 시사점 및 제언 문장을 결론에서 추출하여 계층 군집화하는 질적 내용 분석을 병행 수행하였다. 이는 교육ODA 연구자들의 의견을 전체 수렴해 보는 시도이면서, 학계 내의 이론적 논의로만 그칠 수 있는 내용을 교육 ODA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의거하여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국내 학계에서 제시한 교육ODA의 발전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II. 국내외 교육ODA 방향

1. 국제사회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은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에서 채택된 교육분야 국제의제로, 6대 교육 목표와 12개의 실천 전략으로 구성되었다. 이 의제는 최빈국의 초등교육 보편화를 지원하였으며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교육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6대 교육 목표는 2015년까지 달성되지 못하였으며, 초등교육 보편화 기조로 인해 영유아 보육 및 교육(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ECCE), 성인 문해와 같은 다른 교육 문제를 간과한 한계가 있다(UNESCO, 2015). 하지만 모두를 위한 교육(EFA) 의제는 2015년 이후에도 꾸준히 중요한 국제 교육 목표 중 하나로 공유되었고, 이후 진행된 국제 의제(MDGs, SDGs) 수립과정에 바탕이 되어 지속 수행되고 있다.

2000년 9월 제55차 UN총회에서 채택된 MDGs는 전 세계 빈곤 절반 감소를 위한 8개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2:보편적 초등교육 실현(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이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UN. Secretary-General, 2001). MDGs로 인해 2000년 83%였던 개도국의 초등학교 순 등록률은 2015년 91%로 증가하였으며, 약 1억 명으로 추산되던 학교 밖 아동도 5,70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초등학교 순 등록률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8%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부터 2015년까지는 20%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15~24세 청소년의 문해율도 1990년 83%에

서 2015년 91%로 개선되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교육 격차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일부 개도국에는 초등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초등학교 순 등록률 증가세도 정체 중이다. 또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남녀 초등학교 교육 격차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MDG Monitor, n.d.). 보편성을 강조하다 보니 지역간·계층간·그룹간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분절적 사업 추진으로 포괄적·종합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UN, 2015b; Fehling, Nelson and Venkatapuram, 2013).

MDGs 이행 종료 이후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는 상기 명시된 MDGs의 성과와 한계를 포함하여 전 세계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가지의 목표로 구성되었다. SDGs는 수원국의 경제적 발전만을 중시하였던 MDGs와는 달리, 환경적·사회적·경제적 발전을 포괄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수원국과 공여국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SDGs의 17개 목표 중 중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표는 ‘4: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 기회 촉진(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이다. SDG 4의 세부목표는 초중등학교 출석률이나 문해력 향상에 그치지 않고 기초교육, 유아교육, 직업기술교육, 고등교육 등 전 단계에서의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별간·직업간 교육격차 해소와 세계시민교육도 포함하고 있다(UN. General Assembly, 2017). 그러나 UN이 발간한 「2021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1)」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해 지난 20년간 쌓아온 교육적 성과가 무너졌으며,

목표 4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고 평가하였다. COVID-19로 전 세계 학교의 전면 또는 부분 휴교 조치가 실시되어 2021년 기준 학생 3명 중 2명은 교육받을 수 없었으며, 결혼 및 노동으로 인해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심지어 중하위 소득 국가의 정부 중 65%, 중상위 소득 국가의 35%가 COVID-19 유행 이후 교육 분야 예산을 줄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UN, 2021).

2. 국내 교육ODA 정책 방향 및 현황

한국의 개발협력 중장기 계획은 2021년 1월 수립된 「제3차 국제 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종합 기본계획에 따르면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①포용적 ODA, ②상생하는 ODA, ③혁신적 ODA, ④함께하는 ODA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4개 전략목표 중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략은 전략1. ‘포용적 ODA’로, 포용적 ODA의 목표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다. 소득그룹으로는 최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하며, 최저개발국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포함 기초인프라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기본권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 ①소외계층 대상 문맹률 개선, 기초직업 교육을 통한 생계유지 지원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②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원격교육(e-러닝) 관련 수요 대응 및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원격교육 역량 강화 지원, ③개도국 대학과의 협력 등을 통해 수원국의 고등교육 및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강화,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2. ‘상생하는 ODA’와도 일부 관련이 있다. ‘상생하는 ODA’는 경제·사회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개도국의 사회인프라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 중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교육 보건 사회안전망 등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여 개도국 내 사회 불평등 해소 기여’가 교육 분야와 관련 있다.

교육 분야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내 24개의 중점협력국 중 16개 국가의 중점협력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던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었던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15개국에 비해 증가한 수준이다. 교육 세부 분야 분석 시,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에 중점을 둔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비해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는 기초교육, 교원 양성, 교육 시설, 고등교육, TVET, 여아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등 교육 전 분야로 확대되었으며(안해정 외, 2016),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는 교육 분야 확대만이 아닌, 수원국 자립 기반 마련 도모, 여성 인권 신장 등 사회 문제 해결 연계, ICT 기반 원격 교육 수요 대응 등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심층적·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1).

2022년 우리나라 개발협력 예산 규모(확정액 기준)는 총 4조 425억 원으로, 총 44개 기관에서 1,76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 분야 ODA 예산 규모는 보건, 교통, 인도적 지원에 이어 네 번째로 규모가 큰 분야이며(유상 571억 원, 무상 2,933억 원), 무상원조로 한정한다면 인도적 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2). 한국의 교육분야 ODA 지원 비중은 전체 ODA의

10% 내외를 유지하여 국제사회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수원국의 교육분야 ODA 수요 증가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교육분야에 대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장지순 외, 2018).

주요 교육ODA 사업 수행 부처는 교육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이다. 교육부의 2022년도 ODA 예산은 931.9억 원(교육청 17.2억 원)³⁾으로, 직접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2,755.3억 원), 유상원조 전문기관 대외협력기금(13,334.2억 원), 외교부(5,358.0억 원), 무상원조 전문기관 한국국제협력단(9,102.7억 원)을 제외하면 농림축산식품부(1,052.7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부처다. 교육부의 2022년도 ODA 사업 목표는 ①전략국가 중심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개도국 인적자원 개발 지원, ②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교육 및 원격교육 역량 강화, 개도국 경제 발전을 위한 직업교육 지원 등 수원국 교육협력 수요에 선제적 대응, ③현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연구 역량강화 지원 확대를 통해 선진 고등교육체계 전수 등으로, 협력국 대상 교육협력 양적 확대 및 질적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2). 교육부의 ODA 사업 대상국 중 중점협력국은 13.4%에 불과하나 이는 예산의 대부분(70.8%)을 차지하는 ‘정부 초청 장학사업’이 156개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며, 중점협력분야는 87%로 높은 편이다. 유형별로는 대부분이 기술협력(장학지원) 사업(70.8%)이며 민관협력 사업 비중도 높은 편(12.9%)이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2).

한국국제협력단은 기관 차원에서 「분야별 중기전략(2021-2025)」을

3) 교육청의 경우, 교육부 매칭사업인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만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체 통계 내 기관 수 및 사업 수에는 미포함되어 있음.

수립하고 있다. 교육분야 비전은 ‘양질의 교육을 통한 포용적 발전’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미션으로 ‘협력대상국 교육시스템 개선 및 교육주체 참여 제고를 통해 모든 인간의 교육권 향상에 기여’를 설정하였다. 전략 목표는 ①학습성과 제고를 위한 양질의 교육, ②미래 역량 개발을 위한 디지털 교육, ③인재양성을 위한 직업·고등교육 등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방식으로 ①취약계층 우선지원을 통한 형평성 제고, ②인권과 국제규범(2030 의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파리 기후변화협약 등) 기반 접근, ③디지털 주류화 및 범분야 내재화, ④사업 품질제고 및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근거 기반 사업 추진을 제시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21). 교육부와는 달리 기초교육, 디지털 교육, 청년대상 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타 부처에서도 교육분야 ODA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 각 부처 ODA 추진 전략 및 비전에 맞춰 직업교육·전문교육·기술전수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등 관련 분야 발전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교육ODA 관련 학술연구 75편을 활용하여 양적 연구 동향 분석과 시사점 및 제언을 질적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수집 방

법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교육개발협력, 교육-개발협력, 국제교육개발협력, 교육원조, 교육-원조, 교육ODA, 교육-ODA’ 키워드로 자료를 확보하고(검색일 21년 8월 21일), 이 중 중복논문, 주제무관, 논문외형식, 원문보기불가 논문을 제외하였다. 키워드별 검색된 논문 수는 <표 1>과 같다. 특징적으로 2017년도에 교육ODA 관련 선행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개발협력’ 키워드가 가장 많은 수의 논문을 표시해 내었다. 연도별로 나열하면 <표 2>와 같다.

<표 1> 검색키워드별 논문 수 (2021년 8월 21일 기준)

검색키워드	RISS에서 검색된 논문 수	스크리닝 후
“교육개발협력”	40 편	75 편
“교육_개발협력”	3 편	
“국제교육개발협력”	17 편	
“교육원조”	18 편	
“교육_원조”	14 편	
“교육ODA”	8 편	
“교육_ODA”	13 편	
계	113 편	

<표 2> 연도별 논문 수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1	2	5	1	4	6	6	9	8	13	7	7	5	1	75

2. 연구방법 및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틀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의 분석틀

구분	하위범주
연구 방법	· 문헌연구(동향연구, 비교연구, 정책분석 등) · 사례연구(프로젝트사례, 특정국가사례, 특정기관사례) · 이론개발(모형개발, 원리제시, 이론분석 등) · 조사연구(불특정다수 대상의 설문연구, 수요조사, 요구조사 등)
연구 분야	· 프로젝트(단일 프로젝트 연구, 특정 사업 현황) · 사회정책(정책 분석, 국가 전략 분석, 주요국 정책 비교 등) · 인식태도(공여자 및 수혜자의 인식, 태도 등) · 성과분석(만족도, 평가, 성과, 효과성 등) · 이론탐색(학문적 담론, 철학적 논의 등) · 동향분석(연구동향, 경향성, 분야별동향, 지역동향) · 기타
대상 (주체)	· 타공여국(타공여국의 정책, 원조방법 등) · 국제기구(국제기구 동향, 현황, 실태) · 자기분석(한국 관련, 국내 개발협력 프로젝트 해당) · 수원국(온전히 수원국 중심 접근 논문)
제언 유형	· 학술적(학술적, 연구적 방향성 관련 시사점) · 정책적(사업수행 관련, 정책 및 제도 관련 시사점) · 모두해당(학술적, 정책적 제안을 동시 언급)
제언 내용	· 질적 내용 분석
ODA 단계	· 기획(현황 분석, 동향 파악, 기초 정보 제시) · 발굴(세부적인 oda 프로그램 설계 및 구체적 방향성 제시) · 수행(실제 프로젝트 사례 공유) · 평가(효과성, 만족도 평가 등) · 사후관리

분석틀 구성은 연구방법, 연구분야, 연구대상과 같이 기본적인 양적 분석 기준과 선행연구 제언 유형, 제언 내용, ODA 단계와의 관련성이라는 질적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분석틀은 개발협력학 및 교육학 분야에서 동향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박환보, 남신동,

윤종혁, 2016; 주한나 외, 2020; 한재광, 2021 등)를 참고하여 초안을 만들고, 연구대상 중 10편을 우선 분석하여 귀납적으로 하위범주를 설정하였다. 이 중, 제언 내용의 질적 분석 방법은 제언 유형(학술적, 정책적, 모두 해당)을 표시하면서 파악한 논문 내용을 그대로 추출하여 별도로 목록화하고, 모든 학술논문의 문장 추출 작업이 끝난 후 문장의 핵심 키워드별(초중등, 제도, 여아, 예산, 개도국, 국제기구, CSO, 이러닝 등) 또는 문장에 내포된 의미별(관계 강화, 국가 제도 미흡, 사업의 투명성, 인프라 중심의 문제점, 기초교육ODA 부족, 인재 부족, 전문성 문제, 교사 참여도 등)로 다양하게 범주화(grouping)해 보며 계층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분석 과정은 두 명의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범주화를 시도한 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재종합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쳤으며, 최종적으로는 개별협력 사업 및 연구를 다수 수행한 교수급 연구자 1인에게 안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질적 분석 끝에 ① 기구 및 제도 설치, ② 사업 내용 방향 전환, ③사업 방법의 다변화, ④연구 개발 확대, ⑤ 협력 관계 강화가 가장 상위의 군집으로 제시되었다.

IV. 연구결과

1. 학계의 교육ODA 연구 방향

1) 연구방법 동향

연구방법 동향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교육ODA 선행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가 약 80%를 차지하였으며, 이론개발은 약 7%, 조사연구는 약 9%로 상대적으로 드물게 수행되고 있었다. 문헌연구로는 동향연구, 비교연구, 정책분석 연구가 포함되었고, 사례연구로는 프로젝트사례, 특정국가사례, 특정기관사례를 분석한 논문들이 포함되었다. 이 사례연구들은 국내에서 확보한 문서자료 및 국내 전문가 면담에 기반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국가별·지역별·분야별로 현장에서 진행되는 ODA 사업의 실증적 성격을 연구에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 4> 연구방법 동향

구분	하위범주	논문 수	비중
연구방법	문헌연구	35	46.7%
	사례연구	28	37.3%
	이론개발	5	6.7%
	조사연구	7	9.3%
	총계	75	100%

2) 연구분야 동향

연구분야 동향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연구분야 중에서 사회정책 연구가 약 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향분석, 이론탐색, 프로젝트, 성과분석, 인식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책 연구는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사회 환경 분석, 정책 간 비교, 국제 의제 분석, 공공외교법 분석 등 ODA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책 연구이고, 약 23%를 차지한 동향분석 연구는 특정 현황 분석, 연구 동향 분석, 분야별 사업 분석 등 전반적인 교육ODA의 통계 및 경향성을 밝히

는 연구를 의미한다. 이론탐색과 프로젝트 연구 수는 유사하였는데, 교육ODA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과 원리를 이론적으로 연구하였거나(이론탐색 연구) 실제 프로젝트 사례 분석한 연구(프로젝트 연구)가 적었으며, 사업의 효과성 및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성과평가 연구) 및 인식태도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즉, 연구분야 동향 분석 결과, 교육ODA의 추진 방향 및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많고, 반면 실증적 현장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분야는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표 5> 연구분야 동향

구분	하위범주	논문 수	비중
연구분야	프로젝트	9	12.0%
	사회정책	32	42.7%
	인식태도	2	2.7%
	성과분석	4	5.3%
	이론탐색	11	14.7%
	동향분석	17	22.6%
	총계	75	100%

3) 연구대상(주체) 동향

연구대상 동향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는 선행연구의 분석대상(분석주체)을 파악한 것으로, 자기분석, 국제기구, 타공여국, 수원국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교육ODA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ODA에 관한 자기분석 연구가 41%로 가장 많았고, 수원국 분석 연구가 33%로 두 번째로 많았다. 수원국은 캄보디아(3건), 베트남(2건), 네팔(2건), 라오스, 미얀마, 북한,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권역, 모잠비크(2

건),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말라위, 앙골라, 우간다, 탄자니아, 가나, 사하라 이남 등 아프리카 권역, 과테말라 등 중남미 권역 순으로 골고루 나타났다. 공여국 분석 연구는 약 19%로 일본(7건), 미국(3건), 호주, 독일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 관한 연구는 가장 적은 수를 보였다.

<표 6> 연구대상(주체) 동향

구분	하위범주	논문 수	비중
연구대상	타공여국	14	18.6%
	국제기구	5	6.7%
	자기분석	31	41.4%
	수원국	25	33.3%
	총계	75	100%

4) ODA 수행 절차에 비춰본 동향

교육ODA 선행연구의 사회적 기여도를 예측해 보는 시도로, 논문 주제와 우리나라 ODA 수행 절차 간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ODA 수행 절차는 총 다섯 단계(준비-심사-승인-시행-사후관리)로 구성되어 있다(ODA Korea, n.d.). 첫째, ODA 사업에 대한 지원, 전략 계획 수립, 사업 발굴 등이 이루어지는 준비 단계, 둘째, ODA 사업의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는 심사 단계, 셋째, ODA 사업의 지원에 대한 승인 단계, 넷째,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시행 단계, 다섯째, 사업 완료 후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사후관리 단계로, 선행연구 주제들이 어느 ODA 단계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선행연구는 ODA 사업을 기획·설계하는 초기 단계(준비 단계)와의 관련성이 가장 높았다. 이는 ODA 사업 특성상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연구는 현지 조사 및 실제 사업 과정 중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국내 학계에서는 교육ODA의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 지원 방안을 탐색하는 준비적 성격의 연구가 연구설계 차원에서 더 타당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준비 단계에서도 사업발굴과 관련된 조사적 선행연구는 적었으며, 연구자들이 제시한 한국 교육ODA 전략 및 추진 방향이 실제 사업 수행에의 적용 여부 및 평가 연구도 확인되지 않았다. 개별 프로젝트 사례 위주의 선행연구들이 사업 수행 단계에 제한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었고, 국내외에서 ODA 사업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중시되고 있으나 사후평가에 대한 연구 분석은 거의 확인되지 않아 향후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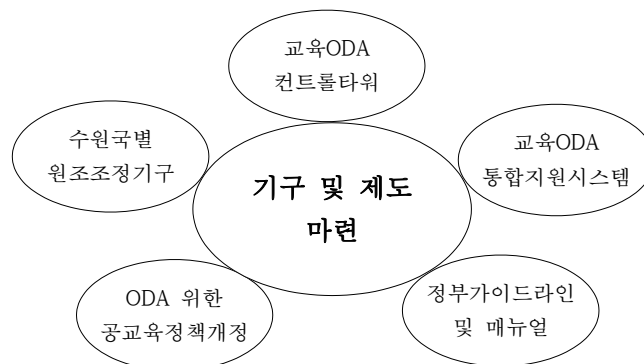
2. 제언 분석을 통한 교육ODA 발전 방안

교육ODA의 질 개선방안은 경험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어떠한 과학적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지에 대한 꾸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작업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ODA 연구자들의 제언을 종합하여 교육ODA 발전방안을 유형화하였다. 세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구 설치 및 제도 마련

선행연구에서는 교육ODA 발전을 위한 기구 설치 및 제도 마련을

강조하고 있었다. 먼저, 교육ODA 기구로는 ①교육ODA 컨트롤타워, ②교육ODA용 통합지원시스템, ③수원국별 개발협력 조정기구를 제시하였다. 김이수, 최예나(2021), 나현 외(2016), 문정연(2017)은 교육ODA 컨트롤타워로써 교육부를 언급하며 교육부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주장하였고, 김정주, 김경연(2017)은 교육ODA용 통합지원시스템이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인력 동원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국내에 개발협력 분야가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수원국별 개발협력 조정기구를 각각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신효숙, 2008; 우명숙, 채재은, 2014).



[그림 1] 교육ODA 발전방안 유형1. 기구 및 제도 마련

향후 요구되는 교육ODA 제도로는 ①정부차원의 교육ODA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작, ②교육ODA를 위한 공교육 정책 개정을 제시하였다. 교육ODA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내용엔 수혜국 선정 기준, 수혜국별 전략 수립 방안, 교육영역별 수행 전략, 모니터링 및 평가 기준, 종료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방안, 다분야에 공통되는 ODA 정

책 및 로드맵, 수행기관 간의 협업 매뉴얼을 필요로 하였고, 교육 ODA를 위한 공교육 정책 개정 관련해서는 사범대학 양성과정에서의 교육ODA 교육과정 도입, 전·현직교사 대상 교육ODA 연수 제공,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같은 비교과교육 강화, 공공외 교자로서의 교육부의 공식적 역할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를 요약하면 위의 [그림 1]과 같다.

2) 사업 내용의 방향 전환

선행연구에서는 대다수의 교육ODA 사업이 인프라 구축 위주임을 지적하며, 개도국의 교육 발전을 위해 현행 교육ODA 사업 내용의 방향성 전환을 제안하였다. 그 방향은 총 여섯 가지로, ① 국제의제 및 크로스컷팅(범분야) 이슈 부합, ② 소프트웨어적 사업, ③ 교사 역량 강화 사업, ④ 교육영역별(초중등·고등·직업훈련) 활동내용의 차별화, ⑤ ICT 기반 사업, ⑥ 배움·성과·수요 중심 교육 사업으로 범주화되고 있었다. 이를 요약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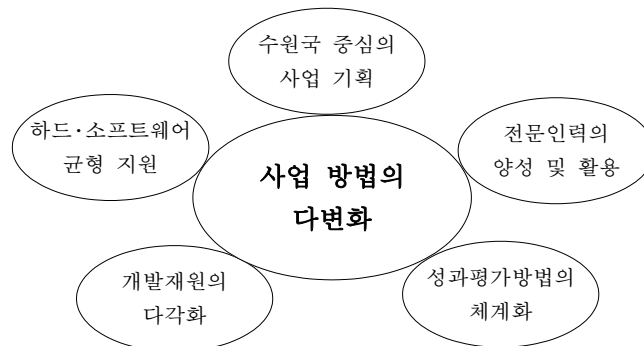
[그림 2] 교육ODA 발전방안 유형3. 교육ODA 사업 내용의 방향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교육ODA 활동들이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목표(SDGs)와 더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박환보, 2020). 예컨대, 젠더 및 환경 이슈, 문해교육, 세계시민교육, 국제 이해교육과 같은 크로스컷팅(범분야) 이슈가 교육ODA 사업에 깊이 녹아들수록 교육분야의 가치를 높이고 개발협력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교육ODA 사업 내용에 교수법, 교사연수, 교육과정개발, 콘텐츠개발, 학교운영, 학부모참여도, 성과관리와 같이 소프트웨어 중심 교육 사업을 강화하여 교육ODA의 사후 지속가능성을 관리·개선하는 접근을 강조하였다. 셋째,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며 개도국 교사를 위한 교사정체성 교육, 교사를 위한 보상제도, 교사공동체 구축, 교사재교육 등 교사의 전문성과 태도를 개선하는 사업을 제언하고 있었다. 넷째, 초·중·고·고등·직업훈련 교육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사업 방향 설정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초·중·고·고등교육의 경우, 초등여아 이슈, 기초교육 재원 확대, 국내 교대와 현지 교대 간의 교육적 협력과 같이 초등교육의 질 개선 중심 사업이 요구되고, 고·고등교육의 경우, 수원국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통로로써 현지 대학 설립 및 확대, 고·고등교육 홍보, 선진국 고·고등교육기관과의 교류, 이러닝 및 ICT 교육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직업훈련의 경우, 특정 기술훈련, 전문대학과정 지원, 현지 직업훈련기관의 법적지위 및 제도 마련, 직업훈련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창업 지원 사업, 직업훈련원의 사후지원 사업 등 개도국민이 실질적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다. 다섯째는 ICT 활용 교육ODA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었다. ICT 기술을 학습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수원국 발전에 지름길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도구로 보며, ICT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여섯째는 교육ODA 사업의 철학적 기초가 배움중심·성과중심·수요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교육ODA를 국가교육에 한정된 영역으로 다루기보다 전체ODA 영역에 통합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위 영역으로 인식하고, 최종수혜자가 희망하는 사업 내용과 학습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신윤지, 엄영호, 정현주, 2017; 정봉근, 박환보, 2013).

3) 사업 방법의 다변화

선행연구에서는 교육ODA의 사업 내용뿐 아니라 사업 운영 방법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교육ODA의 사업 방법은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하여, ①철저한 수원국 분석을 통한 사업 기획, ②성과평가 방법의 체계화, ③국내 개발 자원 다각화, ④국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⑤수원국 상황에 따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원조의 균형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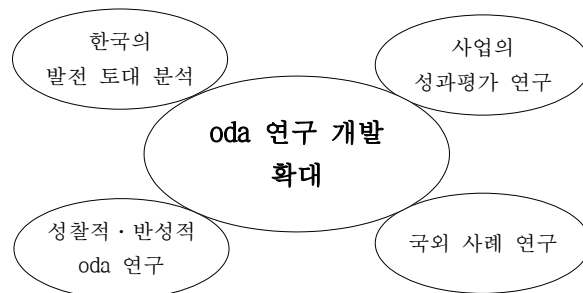
[그림 3] 교육ODA 발전방안 유형4. 교육ODA 사업 방법의 다변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업 기획 과정을 수원국 중심으로 더욱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채재은, 2015). 사업 기획 단계의 현지 조사가 다면적, 장기적, 구체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기초선) 파악이 가능하고, 이에 근거해 효과적인 국내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여 교육ODA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지금보다 절차적 체계성을 가진 사업 기획 단계를 피력하고 있었다. 둘째, 성과평가 방법에 대해 제언하고 있었다. 예컨대, ODA를 통해 교육센터를 구축한 경우, 센터의 완공 여부 외에 센터의 행정 운영 방안, 기자재 관리 방안, 센터 교사 역량 관리, 교사 이탈 방지 대책 등 센터의 자생적 운영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지표가 중요하며, 이를 평가하는 성과 관리자는 해당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교육ODA를 위한 개발재원 확대를 제언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자체 예산 증액과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 외에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다만 개발재원 증액이 교육ODA 사업의 영속성, 후속지원,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전문적인 ODA 인력의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풀뿌리활동 전문가, 평가컨설턴트, ODA교육강사, 사업운영 전문인력, 연구인력, 시니어전문가 등 다양한 역량과 직위의 ODA 인력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한국ODA의 지속적 발전의 발판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교육ODA는 수혜지의 환경과 교육 여건을 고려한 균형적 지원을 강조

하였다. MDGs 이후, UN에서는 개도국의 교육접근성 문제가 거의 해소된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여전히 열악한 지역이 존재하고, 특정 수원국은 누적된 교육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하드웨어 시스템이 필요한 단계라며 교육ODA에서의 하드웨어 지원은 계속해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4) 연구 개발 확대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육ODA 사례를 추적하고 성과를 보급하는 활동으로 교육ODA에 관한 연구 개발을 강조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교육ODA 연구 범위의 확대 및 연구 재원의 확대를 제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빈번히 언급된 연구주제로는 ①한국의 과거 경험 분석, ②국외 사례 연구, ③성과평가 연구, ④성찰과 반성에 근거한 연구가 있었다. 이를 요약하면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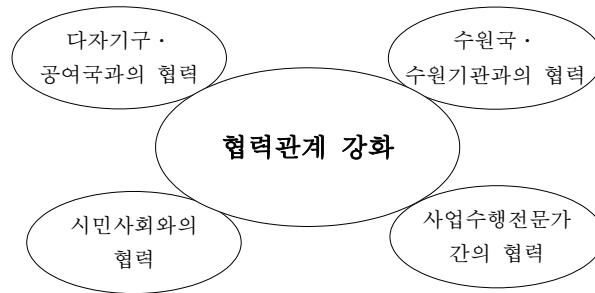
[그림 4] 교육ODA 발전방안 유형5. 교육ODA 연구 개발 확대

구체적으로 첫째, 한국의 과거 경험 분석 연구는 선진국으로서의 성공 경험, 한국교육의 발전과정, 한국교육의 성공요인 규명 등 교

육ODA를 위한 과거 회고 기반 이론적 체계 수립을 위해 요구되고, 둘째, 국외 사례 연구는 수원국 현황 분석, 국제기구 및 공여국의 ODA 사례, 전통 공여국과 한국의 교육ODA 비교 등 국외 실증 자료 수집과 국내 시사점 제공에 유의미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셋째, 성과평가 연구는 교육ODA 사업의 공급과 수요간 인과관계 분석, 수원국 특성에 따른 사업 효과성 분석, 수원지역별 평가지표 수립 및 활용, 공여전문가의 전문역량에 따른 성과 비교, 사후 모니터링 지표 연구 등 성과평가 과정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되었으며, 넷째, 성찰과 반성에 근거한 연구는 한국형 개발협력에 대한 자아성찰, 교육ODA에 대한 철학적·이념적 토대 구축, 평생학습차원에서의 개발협력 탐구 등 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공여자의 반성적 성찰 및 동반자적 인식을 구축하는데 유익한 연구로 설명하고 있었다.

5) 협력관계 강화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육ODA의 주요 발전 동인은 상호 간의 협력 관계로 제시되고 있었다. 협력 관계에는 ① 시민사회와의 협력, ② 다자기구 및 공여국과의 교류 협력, ③ 수행전문가 간의 협력, ④ 수원기관·수원정부와의 상호 협력까지 ODA과정에서 맺어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 협력을 모두 언급하였다. 협력관계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교육ODA 발전방안 유형2. 협력 관계 강화

보다 구체적으로,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국내 소재 기업과의 협업 및 수원국에 소재한 국내 기업과의 협력, 그리고 국내 연구소 및 국내외 NGO와의 공동 협력 등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개발재원 마련과 다양한 ODA사업 추진에 유의미하고, 현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ODA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우명숙, 채재은, 2014). 다자기구 및 공여국과의 교류 협력에는 한국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국제 기류 파악과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 상황에 대한 선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며(김정주, 김경연, 2017), 수행전문가 간의 협력 및 수원기관 · 수원정부와의 협력은 국제적으로 강조하는 원조효과성 증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시하였다(박채원, 2017).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학술연구의 양적 연구 동향 분석 및 학술논문에 제시된

고 있는 시사점과 제언을 질적 분석하여 한국 교육ODA의 발전방안을 유형화하여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교육ODA 관련 학술논문 75편을 수집하여 양적 동향 분석과 연구 결론의 질적 내용 분석을 동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적 연구 동향 분석 결과, 교육ODA 선행연구의 연구방법은 대다수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이며, 연구분야로는 사회정책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대상은 자기분석(한국)사례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학술논문의 사회기여도를 측정하는 차원에서 본 ODA 절차와의 연관성은 준비단계(ODA설계 및 전략마련)와의 관련이 가장 높았고, ODA 수행 및 평가 단계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주제는 드물었다.

논문 제언의 질적 분석 결과, 한국 교육ODA의 발전방안은 ①기구 및 제도 설치(교육ODA 컨트롤 타워, 수원국별 원조 조정 기구, 교육ODA용 통합지원시스템, 정부 수준의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협력력을 위한 제도 및 공교육 정책 개정), ②사업 내용 방향 전환(국제 의제 및 범분야 이슈에 부합, 교육 소프트웨어 중심, 교사 역량 중심, 교육영역별(초중등/고등/직업훈련) 차별화, ICT 활용, 배움·성과·수요 중심), ③사업 방법의 다변화(속가능성을 중시한 기획, 성과평가 방법 개선, 국내 재원의 다각화,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방안,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균형적 지원), ④연구 개발 확대(한국의 발전경험 고찰, 국외 사례연구, 사업 성과평가 연구, 성찰과 반성적 연구), ⑤협력 관계 강화(시민사회와의 협력, 수행전문가 간의 협력, 다자기구 및 공여국과의 교류 협력, 수원국 및 수원기관과의 상호 협력)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른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개발협력법 및 기타 정책적 자료들은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분야별·국가별 등의 세부적인 수행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현 개발협력법을 살펴보면, 개발협력에 대한 철학과 비전과 원조 관련 용어 정의를 서술하고, 기본정신·목표(개도국 삶의 질 향상, 우호관계협력, 범지구적 문제 해결, 그 밖의 기본정신 달성을 위한 사항), 기본원칙(개발원조 이념 달성을 위한 추진 원칙 설정), 수행체계(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 정책우선순위 등)와 같이 거시적 정보를 제공하고(정상희, 2011), 3년마다 발행 중인 백서에는 역사적 발전과정과 정부시스템에 대해 중점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마련하는 국가협력전략(CPS)에는 수원국의 국가적 특성, 정책, 환경, 원조수혜현황 정보를 제시하며 향후 개발협력 사업 방향을 제안하고, 매년 발행하는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추진실적과 평가사항, 올해 국별 ODA예정사업목록 및 규모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즉, ODA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는 다양하나, 실무자들이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공공 안내서 및 지침서는 부재하다. 국내 교육ODA 참여 기관과 전문가들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실무적 수행 매뉴얼 및 교육, 보건, 환경 등 각 분야별 업무 지침서를 정부 수준에서 마련한다면 유의미할 수 있다.

둘째, 교육ODA 연구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하여 연구자의 연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도국 현장 조사 연구가 적고 국외 사례보다 국내 사례 연구가 많았으며, ODA 중견연구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사업효과 분석 및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ODA가 개도국 현장에서 실제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실증 학문이며, 동일한 수원국에게 하나의 사이클이 해마다 순환되는 성과 중심의 프로젝트 활동임을 고려한다면 연구 데이터 누적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전문성을 가진 ODA 연구자에 대한 연구 지원을 강화하여, 여러 국가의 현장 정보 및 사례를 분석하고, 종료 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까지 시도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은 한국 ODA의 학문적,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발전방안들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교육ODA 연구자들의 제언은 국가정책 및 제도, 인적자원, 수행기관, 사업내용, 사업방법까지 다 측면의 발전방안이 나열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계와 절차로 실천할 것인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정책 및 제도 개선안에서도 교육ODA 컨트롤타워, 수원국별 원조조정기구, 교육ODA 융 통합지원시스템, 정부 수준의 수행매뉴얼, 개발협력과 공교육 정책 연계까지 매우 굵직하고 거대한 인적·물적·시스템 차원의 안이 제시되어 실행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발전방안을 누가 개선할 것인가 하는 역할분담(민, 관, 학 등) 기준도 모호하다. 따라서 이러한 학계의 논의가 일련의 실행 방안, 정책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별도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ODA는 교육이라는 범사회적, 범참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민, 관, 학, 개인들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교육ODA의 질을 높이고, 교육ODA에 대한 사회 인식을 증진하여, 개발협력에서 교육분야가 갖는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분야별 ODA 융합을 강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

회적 범분야인 교육분야를 시범 모델로 선정하여 교육전문가 협력 플랫폼 등의 체계가 마련된다면 원조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2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26-1호).
<https://www.odakorea.go.kr/contentFile/MSDC/03.pdf>
- _____ (2022).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기준)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40-1호).
<http://www.odakorea.go.kr/contentFile/MSDC/40.pdf>
- 권혁주, 김태균, 김성규, 김은주, 이수연(2020).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모색: 3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국제개발협력연구** 12(1). 국제개발협력학회. 1-17.
- 김이수, 최예나(2021).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한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분석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5(1). 한국자치행정학회. 57-78.
- 김정주, 김경연(2017). ASEAN 교육개발협력 전략의 국가 비교: 호주와 일본을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8(3).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95-122.
- 나현, 박재희, 공동성(2016). 한국 ODA 정책의 분절성과 메타거버넌스 분석. **국정관리연구** 11(1).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51-78.
- 문경연(2017). SDGs와 공공외교법의 한국 교육ODA에 대한 함의 연구. **NGO 연구** 12(3). 한국NGO학회. 111-135.
- 박채원(2017). 앙골라 예비교사교육 특징에 관한 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9(2). 국제개발협력학회. 85-107.
- 박환보, 남신동, 윤종혁(2016).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연구 동향 분석. **비교교육연구** 26(3). 한국비교교육학회. 75-102.

- 박환보(2020). 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본 북한교육: 북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교육연구논총** 41(2).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67-287.
- 신윤지, 엄영호, 정현주(2017). 고등교육부문 공적개발원조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과 일본의 고등교육 원조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1(1).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183-209.
- 신호숙(2008). 국제개발기구의 교육원조 정책과 북한의 교육개발. **현대북한연구** 11(3). 북한대학원대학교. 271-315.
- 안해정, 서예원, 윤종혁, 김은형, 임후남, 박환보, 최동주, 김명진, 이정화 (2016).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실천 방안 연구: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RR2016-2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우명숙, 채재은(2014). 독일, 일본, 한국의 베트남 교육개발협력정책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24(1). 한국비교교육학회. 325-349.
- 장지순, 전용일, 이광석, 이명선, 곽삼근, 손동희(2018). 2018 **교육분야 ODA 종합평가**. 서울: (사)국제개발협력실행연구원.
- 정상희(2011). **신진 원조 집행방안 모색을 위한 국별 비교**.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정봉근, 박환보(2013). 일본 교육ODA 거버넌스의 특징과 시사점. **국제개발협력연구** 5(2). 국제개발협력학회. 131-159.
- 주한나, 정효림, 권호, 이희진(2020). 한국의 ICT 국제개발협력 연구 동향 분석: 2002-2020년 학술 논문의 체계적 문헌 분석. **국제개발협력연구** 12(3). 국제개발협력학회. 33-55.
- 채재은(2015). 베트남 교육과 공적개발원조. **동남아시아연구** 25(4). 한국동남아학회. 77-124.
- 한재광(2021). 한국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연구동향 분석: 2001~2020년 학술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13(1). 국제개발협력학회. 59-79.
- 한국국제협력단(2021), **KOICA 분야별 중기전략(2021-2025)**.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Ahmad, Y., Bosch, E., Carey, E., and Mc Donnell, I. (2020). *Six decades of ODA: insights and outlook in the COVID-19 crisis*. Paris: OECD Publishing.

Fehling, M. Nelson, B. D. and S. Venkatapuram(2013). Limitations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literature review. *Global public health*. 8(10). 1109-1122.

The World Bank(2022). *Poverty and Shared Prosperity 2022: Correcting Course*.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bitstream/handle/10986/37739/9781464818936.pdf>

UN(2015a).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https://sdgs.un.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21252030%20Agenda%20for%20Sustainable%20Development%20web.pdf>

—(2015b).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New York: United Nations.

—(2021).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1*.
<https://unstats.un.org/sdgs/report/2021/The-Sustainable-Development-Goals-Report-t-2021.pdf>

UNESCO(2015). *Education for all 2000 - 2015: Achievements and challenges*.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32205>

UN. General Assembly(2017). *Work of the Statistical Commission pertaining to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solution /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RES/71/313). New York: United Nations.

UN. Secretary-General(2001). *Road Map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56/326).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48375/files/A_56_326-EN.pdf?ln=en

<자료>

외교부. ‘20년 우리나라 ODA는 22.5억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국가 중 16위. 보도자료 [21-241]. 2021. 5. 25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089&srchFr=&srchTo=

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로부터 검색됨.

MDG Monitor. MDG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2022. 7. 18
<https://www.mdgmonitor.org/mdg-2-achieve-universal-primary-education/>로부터
검색됨.

ODA Korea. 2022. 7. 18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2/L01_S02_01.jsp로부터
검색됨.

Abstract

**Categorization of Korean Education
ODA Development Plan:
Focusing on Previous Researches**

Kim, Seon Jeong

(Lecturer, Pusan National University)

Jeon, Hae Eun

(Senior Researcher, Korean Maritime Institute)

Since Korea joined the OECD DAC in 2009, Korea has been one of the countries with the most remarkable quantitative growth rate. Korea's ODA in Education has continuously expanded at the request of develop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ccordingly, in academia, discussions, and analyses have been conducted steadily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al ODA by scholars. In particular, as the conclusion of academic research presents ideas and implications that scholars have discovered and verified through research, it is a basis for conveniently collecting the opinions of many experts in considering development plans in the field from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In this regard,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academic trends of previous studies on Korean education ODA and qualitatively analyze the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conclusion part to categorize the future-oriented development plans in

educational ODA in detail.

A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 literature and case studies accounted for 80% of domestic academic research on Education ODA, and social policy research was the most common research fiel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cope of research on educational ODA in Korean academic circles is not diverse and not balanced compared to the actual educational ODA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Second, the development plans for educational ODA were classified into five major categories; ①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nd systems, ② changes in the direction of project contents, ③ diversification of project performance methods, ④ expans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⑤ reinforcement of cooperative relationships. Further in-depth research and an expert consensus process are needed to prioritize development plans from an empirical point of view. Finally, this research suggested political and academic implication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Key words : Education ODA,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Development Plan, Suggestion Analysis

투고신청일: 2022. 11. 06

심사수정일: 2022. 12. 23

게재확정일: 2022. 12. 29